

신당 경선 D-2 관전 포인트

‘폰心’ 항배·명의로용 수사 주목

14일 ‘원샷경선’ 조직력 발휘 여부 관심

5천명 대상 여론조사 승부 영향 줄지도

과활을 거듭하던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결승점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막강한 조직력을 과시하며 앞서 나갔던 정동영 후보가 종합 누적득표 순위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투표와 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찰수사 항배 등 최종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결과를 선별리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막판 변수를 중심으로 경선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

를 웃돌기 때문에 승패를 결정지을만한 규모다. 어느 후보든 모바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를 획득한다면 기존 직접 투표에서 뒤진 표를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14일 원샷경선에 앞서 미리 두 번에 걸쳐 실시, 발표된 모바일 투표 결과는 직접 투표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파급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신당 입장에서 모바일 투표가 비록 비밀투표 원칙 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던 경선에 국민의 눈길을 돌리게 한 ‘홍행 효과’로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수사>=정동영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는 경찰의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과 선거인단 개인정보 사건에 대한 수사도 경선의 최대 변수다. 경찰이 ‘원샷 경선’을 이를 앞둔 12일 노 대통령 명의도용 문제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가 결과에서 명의도용이 정 후보 캠프와 직접적 관련이 있든 것으로 나올 경우 정 후보 측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오히려 정 후보 지지층을 결집할 수도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정 후보의 ‘반칙’ 이미지를 부각시켜주지만, 반대로 전북에서는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불투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4일 ‘원샷경선’>=오는 14일 한꺼번에 치러질 서울·경기·인천·전북·대전·충남·대구·경북 등 남은 8개 지역 경선의 표심도 여전히 관전 포인트다. 이들 8개 지역의 선거인단은 110만명으로 투표율을 20% 정도로 가정할 때 2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동영 후보는 전북·대구·경북, 손학규 후보는 경기·인천·서울, 이해찬 후보는 대전·충남에서 유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관심은 정 후보의 조직력이 이날 경선에서도 빛을 발할지 여부다. <여론조사>=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각각 2천 500명씩을 할당, 총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 역시 승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 이미 지난 10일부터 시작했으며 목표 샘플 수를 채우며까지 진행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범여권 지지층과 무당파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전체 경선결과 10%다. 즉 여론조사 지지자 1명이 지역순화 경선과 휴대전화 투표인단 10명과 같은 것이다. 경선 개시 전에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손 후보가 앞섰으나, 초반 8천표를 치르면서부터는 정 후보가 우위 내지 점점 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선 후보 경선을 사흘 앞둔 11일 오전 대통합민주신당 문희상, 김근태 의원, 김효석 원내대표(왼쪽부터)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 ‘후보 단일화’ 논의 부상

孫 “내달 19일까지 이뤄야” 문, 착수 시점 내달초 염두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확정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후보가 되면 즉시 민주평화미래세력의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며 “민주당 후보, 국민중심당 후보, 문국현 후보 등과 회동해 대선 한달전인

11월19일까지 후보단일화를 이룩할 것이며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파주 장단면 도라산역에서 가진 남북비전 선포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손 후보의 ‘휴대전화+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제안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한 뒤 “저는 대통합 대연함과 관련해 세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며 ▲차별없는 성장 노선, 한반도의 대평화 노선 등 노선 중심의 대연합 추진 ▲국민의사를 따르는 통합 ▲일체의 기득권 포기 등을 3원칙으로 제시했다. 신당의 세 후보 중 이해찬 후보측은 단일화에 반

대하지는 않지만 경선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화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측 김형주 대변인은 “이 후보가 단일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방안도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직 우리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부터 하는 것은 후보 스스로 자기 정당성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손 후보의 제안에 대해 “우리 힘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인 지지율 20%까지 가야 하며 스스로 그 수준까지 못 가고 남의 힘에 의존하면 국민이 불신할 것”이라며 “(신당이) 자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월말이나 11월초에 가능할 것이므로 10월 말까지는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 한다”고 말해 단일화 착수 시점으로 11월초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조직력 안 통했나... 승부 “예측 불허”

모바일 2차 투표도 승리

손학규 후보는 1차 휴대전화(모바일) 투표에 이어 11일 2차 투표에서도 승리, 대역전승이 가능성을 넘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비록 전체 누적득표 수에서는 정동영 후보에게 뒤지고 있으나 아직 남은 휴대전화 투표 선거인단 수가 14만여명이나 될 뿐 아니라 14일 실시되는 ‘원샷투표’에 강세 지역인 서울·인천·경기지역이 포함돼 있어 손 후보의 역전이 수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이 같은 휴대전화 투표의 돌풍은 현재 진행 중인 여론조사와 14일 직접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신당 관계자들의 관측이어서 그동안 1위를 달리고 있는 정 후보 측에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손 후보는 이번 2차 휴대전화 투표에서 정 후보에게 2천 71표(3.8%포인트)로 앞섰다. 지난 1차 투표(3.0%포인트) 때보다 격차를 약간 벌렸다. 비록 누적 득표수에서는 정 후보에 1만여표 차로 뒤지는 등 전체 순위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2차 휴대전화 투표에서는 격차를 지난 1차 투표에서보다 더 벌리면서 누적득표차를 줄였다는 점에서 손

후보 측은 한층 고무돼 있다. 1차 투표 결과를 보고는 역전을 반신반의했지만 2차 투표에서까지 승리하면서 역전 분위기를 확실히 탔다고 보는 것이다. 연이은 손 후보의 휴대전화 투표 승리는 정 후보가 외곽 조직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 불법·부정경선 논란으로 타격을 받은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조직에서 우위가 휴대전화 투표에는 반영되지 못하면서 손 후보의 본선 경쟁력 주장이 범여 지지층을 자극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정 후보와의 표차가 1만표 이상 된다는 것. 역전 분위기를 탔다고는 하나 조직 동원력이 우수한 정 후보 측이 14일 원샷투표에서 또다시 큰 표차를 손 후보를 앞설 경우 휴대전화 투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위를 뒤집기 어려울 수도 있다. 때문에 손 후보 측에서는 14일 경선일에 모든 자원봉사자를 동원, 정 후보 측의 조직적 동원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손 후보 측 관계자는 “분위가 반전됐기 때문에 정 후보의 조직동원을 최소화하면 직접 투표에서 오히려 큰 표차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국현 대선 행보 힘 받나

김영춘 의원 신당 탈당 문후보 지지 선언 광주 전직 공직자·교수·기업인 등 518명도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춘 의원이 11일 탈당 및 18대 총선 불출마와 함께 문국현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문 후보의 대선 행보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이날 광주에서는 전직 공직자와 교수, 기업인, 자영업자 등 518명이 문 후보 지지를 선언, 힘을 보탤 것이며 전 문가그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2차 지지선언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래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대표적 386인사로 분류되는 김영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신당을 탈당, 내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문국현 후보

를 지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당내에서 문 후보 우호그룹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원혜영 이계안 제종길 김태홍 문병호 최재천 의원 등 10명 안팎이지만 당을 뛰쳐나와 지원에 나선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이처럼 김 의원이 문 후보 지지의 ‘물꼬’를 트면서 문 후보 우호그룹과 문 후보와 ‘개혁연대’를 모색해온 천정배 의원, 신당 중진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당의원들의 추가 합류는 당장 이뤄지기보다는 내달초 창당대회를 전후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중

이어서 탈당을 통해 문 후보를 지원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경선 이후 ‘범여권 후보 단일화 촉진’의 명분을 내걸고 문 후보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서귀중 전 광주 남구부구청장과 김영광 전 남구의원 등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국현 대신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교수 대기업인, 자영업자 등 광주시민 5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 신바람나는 정치를 펼칠 후보는 문국현 뿐”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창조한국 관계자는 “전 문가 그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중심으로 한 2차 지지선언도 조만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문국현 재산 137억... 이명박 이어 2위

범여권 장외주자인 문국현 후보의 총 재산액이 14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됐다. 문 후보의 재산 보유액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331억원에 이어 대선주자 가운데

2위에 해당된다. 문 후보는 11일 여의도 레크리온 호텔에서 ‘작은 청문회-문국현을 검증한다’는 행사를 갖고 금융자산과 부동산, 스탁옵션, 보유주식,

기부금 내역 등을 공개했다. 문 후보측은 회계사 등을 통해 산출한 재산 보유액이 강남구 도곡동 50평대 아파트(공시지가 기준 19억원)와 경기도 이천 전원주택, 제주도 농지 등 부동산 21억원을 포함, 총 137억여원(추정액 기준)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산행안내: A detailed section containing various hiking notices, including dates, lo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groups.

전통 침·뜸 공개강좌: Advertisement for a tradi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public lecture. It lists the topic as 'Preparation for medical reform and medical law changes', the date as October 18th at 2 PM, and the location at the 3rd floor of the CH Chung-Ang Cultural Center. It also mentions a fee of 30,000 KRW and a contact number 1544-5359/236-3516.